

# 도시 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소득 및 소비지출 구조 분석\*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of Urban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 over the Family Life Cycle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 교 천 현 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 수 이 연 숙\*\*\*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ssistant:* Chun hyun ji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Professor:* Yon suk L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연구결과<br>참고문헌 |
| III. 연구방법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over the family life cycl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the 2004 Survey data from the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which are included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living in urban areas. The income and expenditure data of 20,383 households are analyzed. The family life cycle is classified into six stages and the items of expenditure are classified into 12 categories. The data a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hi^2$  test, F-test,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using SAS 8.0 package program.

\* 본 연구는 2006년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주저자 : 천현진 (with-orbit@hanmail.net)

\*\*\* 교신저자 : 이연숙 (yonsuk@korea.ac.kr)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of the total sample is 3,480,000 won. The proportion of regular and irregular income among the total family income is 95.5% and 4.5% respectively.

Second, the amount and ratio of monthly regular income for each category are significantly different over the family life cycle.

Third, the average monthly family expenditure of the total sample is 2,250,000 won. The amount and ratio of monthly expenditure of all item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over the family life cycle. The highest expenditure item is the traffic expense and phone charge.

**Key Words :**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 소득(income), 소비지출(consumption expenditure)

## I. 서론

가계는 기업, 정부와 더불어 국민경제를 이루는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가계는 국민경제의 거시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도 하며, 역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은 민간소비지출로써 국민경제의 생산 구성과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1997년 말 IMF 외환 위기를 보더라도 국가적인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는 가계의 소득·소비지출 감소를 야기시키며 가계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최현자, 1998), 당시의 금리상승은 가계 및 개인의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며 신용불량자와 가계파산의 급격한 확산을 초래하였다(최공필 외, 2004).

반면 오늘날에는 부동산문제와 맞물려 가계부채가 사상최대로 나타나(한국은행, 2006)<sup>1)</sup> 가계부실화 증대 및 내수부진 등으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외에도 소비문화의 확산에 따른 가계의 초과지출 문제 등은 가계 재정상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경제구조를

위축·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가계경제의 중요성으로 인해 그동안 가계의 전반적인 소득과 소비지출에 대한 연구가 시계열분석과 횡단분석을 통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소비지출양식, 재무구조를 분석하거나(성영애, 2003; 최현자, 2000; 소연경, 2000) 소비지출비목 구성 간에 유사성을 보이는 가계를 유형화하여 각 군집가계의 특성을 알아보는 연구(주인숙, 양세정, 1997)들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사회문제를 반영한 과소비 혹은 초과지출 가계와 같은 특정 가계의 가계경제구조를 분석하는(양정선, 2003; 이성림, 2005) 연구들과 소득탄력성 및 다양한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가계의 소비지출과 재무구조를 분석·평가하는 연구들도(김정현, 최현자, 2002; 허경옥, 한수진, 2005)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과 소비를 함께 살펴본 연구로는 전반적인 재무구조 관련 연구 외에 소득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김혜련, 최현자, 1999)들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족생활을 발달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의

1) 가구당 부채평균은 3,349만원으로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52.1% 차지.

소득 및 지출을 분석한 연구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도시 근로자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구조를 분석하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단계별 가계의 요구 및 자원배분 상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가계의 경제구조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가계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족생활주기 각 단계별 가계의 합리적인 가계재무관리 및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족생활주기

#### 1) 가족생활주기의 개념과 의의

사람이 가족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미혼·결혼·출산·육아·노후의 각 단계에 걸친 시간적 연속을 가족생활주기(family cycle, family life cycle)라 한다.

가족생활주기는 가족의 주요한 생활주기 내지는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찰하려는 것으로 가족원들의 연령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결혼부터 부부 중 한쪽, 혹은 양쪽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한 가족의 일대기로 볼 수 있다. (Fitzsimmons & Williams, 1973)

랜싱과 키쉬(Lansing & Kish, 1964)는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령보다 그가 가족생활 주기 상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함으로써, 듀발(Duvall, 1977)은 한 가계가 가족생활주기 가운데 처한 위치를 알면 소득수준, 소비자행동, 주부의 결혼만족도, 가족의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 등 가정생활의 주요한 요인에 대해 전망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가족생활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2) 가족생활주기의 단계

일반적으로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는 결혼지속연수, 결혼상태, 자녀의 유무와 연령, 가구주 연령, 만자녀의 연령과 같은 가족의 획기적인 사건의 발생과 같은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이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요소들이 사용되어 왔다. 분류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단계구분은 학자에 따라 크게는 2단계부터 24단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간단한 분류는 2단계 분류로 확대기와 축소기로 나뉜다. 가족구성원수의 변천에 따른 4단계 구분(Sorokin, 1931)은 신혼부부단계, 자녀출산 및 양육단계, 1~2명의 자녀 독립 단계, 노인부부만이 살아가는 단계로 나뉜다. 자녀의 교육제도를 기준으로 구분(Kirkpatrick et al, 1934)한 분류는 학동전기 가족, 학동기 가족, 고등교육기 가족, 성인가족의 4단계 분류이다. 비겔로우(Bigelow, 1936)는 가계의 수입·지출과 자녀의 교육상태에 따라 가족생활주기를 7단계로 분류하였으며, 듀발(Duvall, 1957)은 인간발달이론에 입각하여 첫 자녀의 연령과 학년에 따라 가족생활주기를 8단계로 구분하였다.

유영주(1984)는 외국 학자들이 제시한 주기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6단계로, 김병주(1980)는 가구형성 및 생활기반 정착기, 가계생활신장기, 안정기 및 세대교체기의 3단계로 나누었다.

이상과 같이 학자들마다 가족생활주기를 나누는 기준과 단계구분은 다르지만, 공통된 점은 모든 가족이 가족의 형성에서부터 배우자의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소득과 소비지출

### 1) 소득의 개념과 유형

가계소득은 가계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정자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가계로 유입되어 가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화폐가치의 총량을 말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가계구성원이 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일반적인 월급 이외 자유 직업인의 소득 역시 포함된다. 재산소득은 가계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 기타 화폐 자산 등을 생산 자본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자산소득을, 사업소득은 가계의 자기 자본과 가계원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얻는 이윤을 말한다. 이전소득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소득으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나뉜다.

소득을 물가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액면 화폐가치 그대로 나타낸 것은 명목소득이라 하며, 명목소득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누어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을 조정하는 것을 실질소득이라 한다.

### 3) 소비지출의 개념과 유형

가계에서 가족원이 가계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서 소득이 지불되어 사용되는 것을 가계지출이라고 한다(이기춘, 1990). 가계지출은 가족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해서 직접 소비되는 지 여부에 따라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뉜다.

소비지출은 실지출<sup>2)</sup> 중에서 가족의 생활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도시가계조사에

서 소비지출은 1963년부터 1981년까지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의 5대 비목으로 나뉘었으나, 1982년부터는 이것이 세분화되어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의 9대 비목으로 나뉘었다가, 1995년부터는 교육·교양오락비가 교육비와 교양오락비로 분리되어 10대 비목으로 확대되었다(김정현, 2002).

소비지출은 가계경제에서 직접 소비하지 않고 국가경제, 사회시설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되어 그 소비가 다시 유익하게 사용되는 제세금과, 공적연금, 차입금액에 대한 지불이자 및 각종 부담금과 같이 가족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직접 소비되지 않는 지출을 말한다.

### 3. 가족생활주기 관련 가계 소득과 소비지출 연구

가족생활주기라는 가족특성변수에 따른 가계의 소득, 소비지출을 분석한 연구들 가운데 먼저 미국 위스콘신 가계를 대상으로 한 최은숙(1983)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수 및 가정생활주기가 각 지출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병숙과 임혜경(1984)의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주기를 결혼기간과 첫 자녀의 교육상태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하여 가족생활주기별 가계동향을 분석하였다. 최현자와 최현숙(1986)은 농가의 생활주기를 가구주 연령과 자녀성장단계에 따라 8단계로 구분하여 6개 비목의 소비지출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농가 경제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정생활주기가 가계소비지출의 크기와 구성의 결정요인이라는 요한(Johan, 1979)의 연

2) 실지출은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피복 및 신발비, 광열·수도비, 잡비 등과 같이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서 화폐를 지불하여 가계의 순재산액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를 미혼기, 신혼기 가족, 확대기I 가족, 확대기II 가족, 빈보금자리 가족, 은퇴기 가족의 6단계로 분류하여 소비지출을 분석하였다.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소비생활문제를 규명하려는 이기춘(1989)의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를 형성기, 자녀출산·양육기, 초등학교기, 중·고등교육기, 대학 및 자녀결혼기, 노년기의 6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노년기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가계소비생활 문제로 재산관리와 증식을 인지하였다.

전국단위 자료인 1994년 통계청 도시가계 자료를 이용한 노윤주(1996)는 가족생활주기별로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비지출을 분석하였다.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구성비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숙재와 정지영(1997)은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관련하여 소비지출비목 가운데 시간절약 지출비만을 별도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분석하였다. 양정선과 김순미(2003)는 소비지출비목 가운데 자녀의 교육비 지출구조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상 선행연구들에서 가계의 경제구조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는 가계의 소득,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1) 도시 근로자가계의 세부항목별 소득액과 소득구성비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어떠한가?
- 2) 도시 근로자가계의 세부비목별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구성비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어떠한가?

#### 2. 자료 및 조사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2004년 가계조사로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 분류의 편의상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도시 근로자 가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가족생활주기 각 단계별로 설정한 가구주 연령에서 벗어나는 가계와 이사 등의 이유로 결측값이 생긴 가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35,325개의 도시 근로자가계 자료 가운데 57.7%인 20,383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 3. 변수의 선정

##### (1) 가족생활주기 분류

본 연구는 유영주(1984)의 연구를 기초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비지출을 분석한 노윤주(1996)의 연구와 동일하게 가족생활주기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가족생활주기 단계별로 가구주 연령의 상·하한선을 설정하여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가계는 제외함으로써 앞선 연구들과 차이를 두었다. 이는 각 가족생활주기의 특성에 따른 가계의 소득·소비지출 구조의 전형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첫 자녀 연령,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설정한 가족생활주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형성기 (1 단계)

이 시기는 결혼에서부터 첫 자녀를 출산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2004년 남성의 초혼연령이 평균 30.6세, 부인이 첫 자녀를 출생하는데까지는 평균 1.4년<sup>3)</sup>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인구동태조사, 2005) 이 시기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32세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의 가구주 상한연령으로 형성기 가계의 약 90%가 포함되는 36세, 하한연령은 25세로 설정하였다.

② 자녀출산 및 양육기(II단계)

이 시기는 첫 자녀 출산으로부터 첫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로 첫 자녀의 연령은 취학 연령을 감안하여 0~5세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前단계의 가구주 평균 연령으로 추정된 32세를 기준으로 첫 자녀가 5세가 되는 37세를 상한연령으로 설정하였다. 하한연령은 가구주 연령분포 상 하위 5%에 해당하는 29세로 설정하였다.

③ 자녀 초등교육기(III단계)

이 시기는 첫 자녀의 초등학교 교육시기로, 첫 자녀 연령을 6~13세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前단계 가구주의 상한연령인 37세 이후, 첫 자녀가 6세에서 13세가 되는 45세를 상한연령으로 설정하였다. 하한연령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 35세로 설정하였다.

④ 자녀 중고등교육기(IV단계)

이 시기는 첫 자녀의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시기로, 첫 자녀 연령을 14~19세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가구주 연령 상한선은 前단계 가구주의 상한연령인 45세 이후, 첫 자녀가 14세에서 19세가 되는 51세로 설정하였다. 하한연령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 41세로 설정하였다.

⑤ 자녀 성인기(V단계)

이 시기는 첫 자녀의 대학 교육 혹은 취업, 군복무로부터 막내자녀가 결혼하여 독립하기 전까지이다. 가구주 연령 상한선은 前단계 가구의 상한연령인 51세 이후 첫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 30세에 결혼하기까지 걸리는 11년과 막내자녀가 결혼하기까지 걸리는 약 2년<sup>4)</sup>을 더한 64세로 설정하였다. 하한연령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 48세로 설정하였다.

⑥ 노년기(VI단계)

이 시기는 보통 막내자녀가 결혼하여 독립한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유영주, 1984)이나 본 연구에서는 막내자녀 결혼 후 부부 둘만 남는 시기로 한정하였다. 가구주 연령의 상한선은 본 연구대상의 연령분포대에서 빈도수가 크게 증가하는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2) 소득 세부항목 분류

가계소득은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 수입을 말하며,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부소득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표 2>와 같다.

(3) 소비지출 세부비목 분류

현재 가계조사연보는 소비지출비목을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비의 10대 비목으로 분류하

3) 2004년 기혼여성 첫 자녀출산평균연령(28.9세)-2004년 여성 초혼평균연령(27.5세)=1.4년

4) 2004년 자녀 성인기에 해당하는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약 54세(표 2참조)이며, 이 연령대의 평균출생아수는 2.3명임(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85년) 따라서 자녀들의 터울을 일반적으로 2년으로 보아 첫 자녀 이후 둘째 자녀가 결혼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된다고 보았음.

(표 2) 가계 소득 항목의 세부적 정의

소득 항목	세부 정의
경상소득	가구 소득 중 정기적이고 재현가능성이 있는 소득
- 근로소득	가구주소득(가구주급여소득/가구주상여금), 배우자소득(배우자급여소득/배우자상여금), 기타가구원소득(기타가구원급여소득/기타가구원상여금)
- 사업소득	사업소득, 가구주사업소득, 배우자사업소득, 기타가구원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재산소득
- 이전소득	공적보조금, 공적연금, 기타사회보장수혜, 사적이전
비경상소득	교제·축의·조의 등에 의하여 받은 금액(복권·경품권·경마 등 오락경기에 의한 상금, 손해보험금, 탄 금액·퇴직금·연금일시금·장학금 등)

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증가 및 외식 산업의 발달로 점차 가계 내의 외식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식료품에 포함된 외식비를 따로 세분하여 총 11개의 세부비목으로 구성하였다.

#### 4. 분석방법

먼저 조사 대상의 전체 가계 및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또한 세부항목별 소득액과 세부비목별 소비지출액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후검증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이 모든 자료 분석을 위해 SAS 8.0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 수는 20,383 가구로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조사대상 분포는 형성기 가계가 7.1%, 자녀출산 및 양육기 가계가 19.5%였으며 자녀 초등교육기와 자녀 중고등교육기는 각각 31.5%, 21.4%로 전체 가계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자녀 성인기와 노년기 가계는 각각 17.1%, 3.4%였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2.3세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40대가 약 7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가구원수는 평균 3.6명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원수 5인 이상의 가계 비중은 약 9%에 그쳤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41.6%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하가 37.6%로 다음으로 많았다. 가구주 직업은 기술직과 뒤를 이어 전문·관리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약 348만원이며, 소득분포대는 150~250만원, 250~350만원이 각각 약 26%로 과반수를 넘었다. 주부취업가계는 약 41%였으며 주거소유유형은 자가비중이 6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 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가구수 (N=20,383)	백분율 (%)*
가족생활 주기	형성기	1,451	7.1
	자녀출산 및 양육기	3,967	19.5
	자녀초등교육기	6,429	31.5
	자녀 중·고등교육기	4,358	21.4
	자녀 성인기	3,476	17.1
가구주 연령	노년기	702	3.4
	20대	829	4.1
	30대	7,738	37.9
	40대	7,782	38.2
	50대	2,885	14.2
	60대 이상	1,149	5.6
	평균(세)	42.3	100.0
가구원수	2인	2,153	10.6
	3인	5,645	27.7
	4인	10,764	52.8
	5인	1,723	8.4
	6인 이상	98	0.5
		평균(명)	3.6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이하	3,006	14.8
	고졸 이하	8,489	41.6
	대졸 이하	7,673	37.6
	대학원 이상	1,215	6.0
가구주 직업	전문·관리직	5,221	25.6
	사무직	3,949	19.4
	기술직	7,493	36.8
	판매·서비스직	1,432	7.0
	단순근로/노무직	2,288	11.2
		평균(만원)	348
가계소득	150만원 이하	1,874	9.2
	150-250만원	5,224	26.6
	250-350만원	5,278	25.9
	350-450만원	3,586	17.6
	450만원 이상	4,421	21.7
		평균(만원)	348
주부 취업여부	취업	8,374	41.1
	비취업	12,009	58.9
주거 소유유형	자가	12,506	61.4
	전세	5,937	29.1
	월세	1,940	9.5

\* 백분율의 합이 100%가 아닌 경우는 반올림에 의한 것임.

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세부항목별 소득액과 구성비

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세부항목별 소득액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세부항목별 소득액은 <표 4>와 같으며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세부항목별 소득액에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도시 근로자가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약 348만원으로, 자녀 성인기에 가장 높고 노년기에 약 17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즉, 형성기를 시작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감소하였다가 자녀 초등교육기부터 자녀 성인기까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다 노년기에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오늘날 형성기의 맞벌이가계 비율 증가로 이 시기의 가계소득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노년기는 점차 퇴직연령이 낮아지면서 50대 중반 이후 가계소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월평균 경상소득액의 경우는 자녀 중·고등교육기에 가장 높았으나 자녀 성인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유사집단으로 나타났으며 노년기에는 역시 경상소득액이 가장 낮았다. 월평균 근로소득도 경상소득 패턴과 동일하였다.

월평균 가구주 소득의 경우, 자녀 중·고등교육기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패턴으로, 자녀 성인기에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노년기에도 형성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월평균 가계소득과 경상소득이 자녀 성인기에 높은 것은 자녀소득이 더해진 때문인데, 자녀소득은 자녀의 결혼비용 등으로 저축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가구주 소득과 배우자 소득이 감



〈표 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세부항목별 소득액과 분산분석 결과

(단위 : 천원)

가족생활주기 변수		형성기 (N=1,451)	자녀출산 및 양육기 (N=3,967)	자녀 초등 교육기 (N=6,429)	자녀 중·고등 교육기 (N=4,358)	자녀 성인기 (N=3,476)	노년기 (N=702)	전체	F-값
가계소득	평균	3,278	2,908	3,510	3,929	3,933	1,704	3,475	206.29 ***
	Duncan	C	D	B	A	A	E		
경상소득	평균	3,132	2,725	3,379	3,789	3,734	1,553	3,319	303.90 ***
	Duncan	C	D	B	A	A	E		
- 근로소득	평균	3,005	2,629	3,209	3,515	3,441	1,218	3,121	296.44 ***
	Duncan	C	D	B	A	A	E		
가구주 소득	평균	2,141	2,359	2,822	3,018	2,279	1,065	2,572	309.60 ***
	Duncan	D	C	B	A	C	E		
배우자 소득	평균	864	269	387	471	298	153	392	169.81 ***
	Duncan	A	D	C	B	D	E		
기타가구원 소득	평균	3	0	1	27	864	1	153	2375.49 ***
	Duncan	B	B	B	B	A	B		
- 사업소득	평균	83	34	115	186	146	33	114	47.55 ***
	Duncan	D	E	C	A	B	E		
- 재산소득	평균	21	8	28	45	86	82	39	42.57 ***
	Duncan	CD	D	C	B	A	A		
- 이전소득	평균	24	54	27	42	61	219	48	54.24 ***
	Duncan	C	B	C	BC	B	A		
비경상소득	평균	147	183	131	140	199	152	156	2.02
	Duncan	A	A	A	A	A	A		

\*P<.05, \*\*<.01, \*\*\*<.001

소하는 자녀 성인기는 실질적으로 소득 감소 시기로 보아야 한다. 앞으로 정년단축 및 조기퇴직 현상이 더욱 가속화됨으로 인해 근로 소득이 최고점을 이루는 시기도 더욱 앞당겨 질 것이므로 노년기 뿐 아니라 자녀 성인기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비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배우자 소득의 경우 형성기에 약 8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녀 중·고등교육기에 약 47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배우자 소득은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감소하였다가 어린 자

녀의 양육 부담에서 다소 벗어나는 자녀 초등교육기부터 다시 증가하지만 소득액은 형성기의 1/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들이 재취업할 시 파트 타임제 및 임시·계약직 형태로 취업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기타가구원의 소득은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되는 자녀 성인기에 월 86만원 정도로 가장 높았고, 자녀 중·고등교육기에는 월 3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은 자녀 중·고등교육기에 약 1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녀 성인기에 약 15만

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사업소득액의 변화는 경상소득 및 근로소득 패턴과 동일하였다. 공적연금 및 사적이전 등이 포함되는 이전소득은 노년기에 약 2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출산 및 양육기는 자녀 성인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유사집단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늘날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부모님과 기타 가족들로부터의 사적이전이 증대된 때문으로 보여진다. 재산소득은 자녀 성인기에 약 9만원, 노년기에 약 8만원으로 가족생활주기 후반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비경상소득은 자녀성인기에 약 20만원,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약 18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 대개 자녀의 결혼 및 백일·돌 등을 치르면서 경조비형태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세부항목별 소득구성비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세부항목별

소득구성비는 <표 5>와 같다.

가계소득 내 경상소득 비중은 자녀 중·고등교육기에 96.4%로 가장 높았고 노년기는 91.1%로 가장 낮았다. 자녀 중·고등교육기에 경상소득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이 시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가족생활주기 중 가장 높고, 배우자소득도 형성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노년기는 이전소득이 다른 가족생활주기보다 월등히 높고 재산소득도 높은 편이나,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감소폭이 커서 경상소득액이 바로 前단계인 자녀 성인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내 근로소득의 비중은 형성기에 91.7%로 가장 높고 노년기에 71.5%로 가장 낮았다. 형성기는 비교적 입사 초기인 시기로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이 낮으므로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계소득 내 가구주 소득 비중은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81.1%로 가장 높았고 자녀 성인

(표 5)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세부항목별 소득구성비

(단위 : %)

가족생활주기 변 수	형성기 (N=1,451)	자녀출산 및 양육기 (N=3,967)	자녀 초등 교육기 (N=6,429)	자녀 중·고등 교육기 (N=4,358)	자녀 성인기 (N=3,476)	노년기 (N=702)	전체
가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상소득	95.5	93.7	96.3	96.4	94.9	91.1	95.5
- 근로소득	91.7	90.4	91.4	89.5	87.5	71.5	89.7
가구주소득	65.3	81.1	80.4	76.8	58.0	62.5	74.0
배우자소득	26.4	9.3	11.0	12.0	7.6	9.0	11.3
기타가구원소득	0.0	0.0	0.0	0.7	22.0	0.0	4.4
- 사업소득	2.5	1.2	3.3	4.7	3.7	1.9	3.3
- 재산소득	0.6	0.3	0.8	1.2	2.2	4.8	1.1
- 이전소득	0.7	1.9	0.8	1.1	1.5	12.9	1.4
비경상소득	4.5	6.3	3.7	3.6	5.1	8.9	4.5

기에는 58.0%로 가장 낮았다. 이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주부취업률이 前단계에 비해 크게 낮아져 배우자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비경상소득과 이전소득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나 비경상소득은 정기적이 지 않은 소득인데다 이전소득은 월 5만원 수준이므로 이 시기의 소득원은 가구주 소득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자녀 성인기에는 자녀의 취업으로 인한 기타가구원의 소득이 증가하는데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도 다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가구주의 소득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내 배우자소득 비중은 형성기에 26.4%로 가장 높았고 자녀의 사교육비 충당을 위해 주부들의 재취업이 증가하는 자녀 중·고등교육기에 두 번째로 높았으며, 자녀입사가 끝나고 자녀들이 취업을 하게 되는 자녀 성인기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계소득 내 사업소득 비중은 자녀 중·고등교육기와 자녀 성인기에 높았고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가장 낮았다. 이는 자녀 중·고등교육기와 자녀 성인기에 해당하는 가구주의 주 연령대가 40·50대 중반이므로, 20·30대에 직장생활을 통해 쌓아온 경력 및 사회적 관계망을 통하여 사업소득을 올릴 기회가 높은 반면에 자녀출산 및 양육기는 자녀를 출산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으로 가구주 및 배우자가 사업소득을 획득할 기회가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가계소득 내 재산소득 비중은 자녀출산 및 양육기를 제외하고 가족생활주기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여 형성기 0.6%에서 노년기에 4.8%로 증가하였다. 이전소득의 비중은 연금 및 자녀들로부터의 사적이전이 증가하는 노년기에 12.9%로 가장 높았고 형성기에 0.7%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경조소득 및 퇴직금·연금 일시

금이 포함되는 비경상소득의 비중은 노년기에 8.9%로 가장 높고 자녀출산 및 양육기가 그 다음으로 높았으나 자녀 초등교육기 및 자녀 중·고등교육기에는 3%대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세부비목별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구성비

#### 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세부항목별 소비지출액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세부비목별 소비지출액은 <표 6>과 같으며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각 세부비목별 소비지출액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약 225만원으로, 11개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교통통신비가 월평균 약 41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었다. 이 가운데 교통비가 약 27만원, 개인교통비는 약 2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통신비 가운데는 이동전화요금이 약 8만원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지출규모가 큰 비목은 기타소비지출로 월평균 약 3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잡비가 30만원이었다. 세 번째로 지출규모가 큰 비목은 식료품비로 약 30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은 교육비로 약 29만원, 그 다음은 외식비가 높게 나타났다. 피복 및 신발비, 교양오락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의 지출액은 월평균 9~11만원대로 지출규모 순위 6, 7, 8, 9, 10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녀 중·고등교육기에 이르기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형성기와 자녀출산

및 양육기의 소비지출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유사집단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은 자녀 성인기에 그 지출액이 가장 높았으나 교육비는 자녀 중·고등교육기에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자녀 초등교육기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늘날 교육열 과열로 사교육의 장이 자녀 초등교육기로까지 확

대되었음을 시사한다. 보건의료비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가장 높게 나타나 저출산 기조로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영유아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가장 높고 형성기가 두 번째로 높았는데 이는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산후조리원 및 산후

〈표 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세부비목별 소비지출액과 분산분석 결과

(단위 : 천원)

가족생활주기 변 수		형성기 (N=1,451)	자녀출산 및 양육기 (N=3,967)	자녀 초등 교육기 (N=6,429)	자녀 중·고등 교육기 (N=4,358)	자녀 성인기 (N=3,476)	노년기 (N=702)	전체	F값
가계소비지출	평균	1,875	1,895	2,279	2,631	2,502	1,187	2,251	177.61 ***
	Duncan	D	D	C	A	B	E		
- 식료품비	평균	195	270	312	329	336	259	301	213.79 ***
	Duncan	E	C	B	A	A	D		
- 외식비	평균	293	235	281	327	330	110	285	307.36 ***
	Duncan	B	D	C	A	A	E		
- 주거비	평균	53	59	65	67	70	57	63	1.94 ***
	Duncan	B	AB	AB	AB	A	AB		
- 광열· 수도비	평균	66	82	99	107	108	72	96	180.67 ***
	Duncan	E	C	B	A	A	D		
-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평균	122	145	89	77	79	42	96	33.37 ***
	Duncan	B	A	C	C	C	D		
- 피복 및 신발비	평균	114	102	116	137	137	41	119	62.38 ***
	Duncan	B	C	B	A	A	D		
- 보건 의료비	평균	86	108	84	91	102	93	94	4.82 ***
	Duncan	B	A	B	AB	AB	AB		
- 교육비	평균	21	99	374	530	222	4	290	496.34 ***
	Duncan	E	D	B	A	C	E		
- 교양 오락비	평균	123	104	116	115	125	31	112	14.62 ***
	Duncan	A	B	AB	AB	A	C		
- 교통통신	평균	412	367	380	443	491	192	406	14.43 ***
	Duncan	BC	C	BC	AB	A	D		
- 기타소비 지출	평균	388	326	363	409	503	285	389	49.99 ***
	Duncan	BC	D	C	B	A	E		

\*P<.05, \*\*<.01, \*\*\*<.001

도우미 등의 시장 서비스의 이용과 보육료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형성기 기혼여성들의 취업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출역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월 평균 피복 및 신발비는 자녀 성인기와 자녀 중·고등교육기가 통계적 유사집단으로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패션·스타일에 대한 관심 증가와 고급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반영되어 자녀 중·고등교육기와 자녀 성인기의 지출액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월평균 기타소비지출은 자녀 성인기에 가장 높고 자녀 중·고등교육기에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세부항목별 소비지출구성비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세부비목별 소비지출 구성비는 <표 7>과 같다.

11개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지출구성비가 가장 큰 비목은 교통통신비로 전체 가계소비지출의 18%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는 기타소비지출로 가계소비지출의 17.3%였으며 이 가운데 잡비가 기타소비지출의 약 77%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는 가계소비지출의 13.4%를 차지한 식료품비였으며 다음은 12.9%를 차지한 교육비였고 다음은 외식비가 12.7%로 그 뒤를 이었다. 피복 및 신발비, 교양오락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의 지출액은 가계소비지출의 4~5%대로 지출비중 순위 6, 7, 8, 9, 10위를 차지하였으며 주거비는 약 2.8%로 가장 낮았다.

가족생활주기별로는 형성기에 교통통신비와 외식비, 교양오락비와 피복 및 신발비가 각각 22%, 15.6%, 6.6%, 6.1%로 가족생활주기 중 가장 높았다. 반면에 노년기에는 기타소비지출비와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광열·수

<표 7>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세부비목별 소비지출 구성비

(단위 : %)

가족생활주기 변 수	형성기 (N=1,451)	자녀출산 및 양육기 (N=3,967)	자녀 초등 교육기 (N=6,429)	자녀 중·고등 교육기 (N=4,358)	자녀 성인기 (N=3,476)	노년기 (N=702)	전체
가계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비	10.4	14.3	13.7	12.5	13.4	21.8	13.4
외식비	15.6	12.4	12.3	12.4	13.2	9.3	12.7
주거비	2.8	3.1	2.8	2.5	2.8	4.8	2.8
광열·수도비	3.5	4.3	4.4	4.1	4.3	6.1	4.3
가구집기·가사용품비	6.5	7.6	3.9	2.9	3.2	3.5	4.3
피복 및 신발비	6.1	5.4	5.1	5.2	5.5	3.5	5.3
보건의료비	4.6	5.7	3.7	3.4	4.1	7.8	4.2
교육비	1.1	5.2	16.4	20.1	8.9	0.3	12.9
교양오락비	6.6	5.5	6.1	4.4	5.0	2.6	5.0
교통통신비	22.0	19.4	16.7	16.8	19.6	16.2	18.0
기타소비지출비	20.7	17.2	15.9	15.5	20.1	24.0	17.3

도비와 주거비의 구성비가 각각 24.0%, 21.8%, 7.8%, 6.1%, 4.8%로 가족생활주기 중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형성기에는 대체로 선택재의 지출구성비가 높고, 노년기에는 필수재의 지출구성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자녀 중·고등교육기에는 교육비의 지출구성비가 20.1%로 가장 높았고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는 가구집기·가사용품비와 보건의료비의 지출구성비가 7.6%와 5.7%로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자녀 중·고등교육기의 교육비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는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보육서비스 외 기타가사서비스와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도시 근로자 가계의 세부항목별 소득액과 소득구성비, 세부비목별 소비지출액과 지출구성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근로자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약 34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성인기에 가장 높고 노년기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월평균 경상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는 자녀 중·고등교육기였으나 자녀 성인기와 통계적으로 유사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소득의 경우 자녀 중·고등교육기 이후 자녀 성인기와 노년기에 비교적 크게 감소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배우자 소득액은 형성기에 가장 높고 자녀 중·고등교육기에 두 번째로 높았다. 월평균 사업소득액은 자녀 중·고등교육기와 자녀 성인기가 각각 약 19만원, 15만원으로 상위 2단계를, 재산소득은 가족생활주기 후반부에 해당하는 자녀성인기와 노년기가 약 9만원, 8만원으로 상위 2단계를 차지하

였다. 공적연금 및 사적이전 등이 포함되는 이전소득액은 노년기에 약 2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상소득의 구성비는 자녀 중·고등교육기에 96.4%로 가장 높고 반면 노년기에 91.1%로 가장 낮았다. 조사대상이 도시 근로자가 아닌 만큼 근로소득이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근로소득 구성비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를 제외하고 가족생활주기 후반부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업소득의 구성비는 자녀 중·고등교육기와 자녀 성인기에 각각 가계소득의 상위 2단계를 차지하였고, 재산소득은 가족생활주기 후반부에 해당하는 노년기와 자녀 성인기가 상위 2단계를 차지하였다. 이전소득 비중의 경우 노년기에 다른 가족생활주기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셋째, 도시 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소득액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모든 세부항목별 소득액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자녀 중·고등교육기와 자녀 성인기에 높게 나타났고 노년기와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는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은 자녀 성인기에 그 지출액이 가장 높았으나 교육비는 자녀 중·고등교육기에,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보건의료비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도시 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세부비목별 소득구성비를 살펴보면, 형성기에는 교통통신비와 외식비, 교양오락비와 피복 및 신발비의 비중이 가족생활주기 중 가장 높았다. 반면에 노년기에는 기타소비지출비와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광열·수도비와 주거비의 구성비가 가족생활주기 중 가장 높았다. 이는 형성기에는 대체로 선택재의 지출

비중이, 노년기에는 필수재의 지출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 자녀 중·고등교육기에는 교육비의 지출비중이,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는 가구집기·가사용품비와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자녀 중·고등교육기의 교육비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는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보육서비스 외 기타 가사서비스와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도시 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소비지출액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모든 세부비목의 소비지출액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도시 근로자 가계의 소득, 소비지출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형성기에 맞벌이 가계가 일반화되면서(주부취업률 약 61%) 이 시기의 가계소득 증가가 크게 두드러지는데 이로 인해 자녀출산 및 양육기 시기에는 상대적 소득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즉,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형성기의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은 예전에 비하여 크게 증대되었으나 한번 높아진 소비수준은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갑자기 낮아지기 어려우므로 오늘날 자녀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여성 취업활동의 중단에 대한 기회비용은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가계의 저출산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과 같은 일회적 성격의 비경상소득을 제공하는 것보다 자녀출산 및 양육기의 소비지출 부분에서 소득효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체감 소득 감소율을 상쇄시키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상소득이 정점을 이루는 시기가 자녀 중·고등교육기로 나타났는데 오늘날 도시 근로자들의 정년이 단축되거나 임금상승 없이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 등이 도입되면서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정점을 이루는 연령이 점차 낮아질 뿐 아니라 정점 이후 가구주의 소득 감소율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도시 근로자 가계에서 재산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대에 불과하고 저금리 기조로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노년기는 물론 가구주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게 될 자녀 성인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시 근로자가계의 소비지출 가운데 교통통신비의 경우 지출 규모 1순위로 나타났는데 향후 인터넷 및 이동전화 사용에 대한 각종 부가서비스와 무선통신 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되고, 고유가, 자동차 보유 가계의 증가, 주 5일제와 맞물려 레저문화발달 등으로 가계의 교통통신비 지출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비 지출규모는 자녀 중·고등교육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자녀 초등교육기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가계의 자녀 교육에 대한 가계부담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가계의 교육비 감소를 위해 공교육의 강화를 비롯한 정부차원의 현실적 대책이 뒤따라야 함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자녀 초등교육기와 자녀 중·고등교육기는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높은 시기로 이후 자녀 성인기 및 노년기의 소득 격감에 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하는 시기이다. 이에 개별가계의 차원에서 이 시기의 자녀 교육비 과다지출을 막기 위한 가계 구성원의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습방식에 대한 개선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시 근로자가계의 소득액과 소비지

출액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생활주기를 통해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을 분석하는 것이 설득력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 각 단계별로 세부항목별 소득액과 세부비목별 소비지출액이 어떠한지를 분석함으로써 찾아낸 각 단계의 요구와 문제점 등을 재무 설계시 반영한다면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고려하는 단편적인 재무 설계보다 훨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를 설정함에 있어 첫 자녀의 연령 외에 가구주 연령을 추가 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가족생활주기별로 가구주의 연령분포를 분석하여 상·하위 약 5%에 해당하는 가계를 제외함으로써, 가족생활주기 각 단계별로 가구주 연령의 상·하한선 연령을 설정하였다. 이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전형적인 가계의 소득, 소비지출구조를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상 그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가구주의 연령이 다른 가족생활주기 관련 논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통제된 편인데 본 연구의 결과가 가족생활주기의 영향 외에 가구주의 연령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족생활주기 및 기타 변인의 독립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 각 단계별로 가계의 전형적인 소득 및 소비지출구조를 알아보고자 조사대상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으로 제한하였다(단, 형성기와 노년기는 부부 2인으로 구성된 가계로 한정함). 이로 인해 한 부모 가정 및 여성이 가구주인 가정, 조부모 및 다른 가족원이 동거하는 확대 가정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오늘날

가족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그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도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소득·소비지출 구조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각 가계의 경제적 특성 및 문제점을 밝혀 향후 재무 설계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가계의 소비지출만을 분석하였으나 오늘날 비소비지출액과 그 구성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가계지출 분석 시에는 소비지출을 비롯한 비소비지출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7년 01월 15일
- 심사일 : 2007년 01월 18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2월 26일

## 【참고 문헌】

- 1) 강이주, 김영신, 허경옥(1999). 가계경제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2) 김년희(2004). 가정생활주기별 가계재정상태 결정요인 분석: 재정상태가 불건전한 가계를 대상으로. 소비문화연구 7(2), 1-21.
- 3) 김정현(2002).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혜련, 최현자(1999). 유형별 가계소득과 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10), 91-106.
- 5) 노윤주(1996). 도시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문숙재, 정지영(1997).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가계의 시간절약 지출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59-72.



- 7) 배희선, 최현자(199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67-179.
- 8) 범수인, 문숙재(199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투자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1), 199-217.
- 9) 성영애(2003). 가구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 가계재무구조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1(1), 39-58.
- 10) 양정선, 김순미(200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교육비 지출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1), 135-152.
- 11) 유영주(1984). 한국 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11-130.
- 12)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2000).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13) 유영주, 이순형, 홍숙자(1990). 가족발달학. 서울: 교문사.
- 14) 이기춘(1991). 가정경제학-가계행동의 분석과 이해. 서울: 교문사.
- 15) 이성림(2005). 과소비·부채가계의 가계경제구조 분석-과소비·부채가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6(1), 79-38.
- 16) 이성민(1992). 도시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9, 53-60.
- 17) 이승신, 김기옥, 김경자, 심영, 정순희(1996). 가계경제학. 서울: 학지사.
- 18) 이은실, 최현자(1998).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소비자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11-122.
- 19) 임정빈, 윤성인(2002). 한국 도시가정의 가계구조변화. 서울: 신정.
- 20) 전윤숙, 이희숙(2000). 도시가계의 교통비 지출 변화 : 1985-1998. 대한가정학회지 38(1), 139-154.
- 21) 최공필, 이건범, 이명호, 임병철(2004).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정책조사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 22) 최현자, 최은숙(198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경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35-51.
- 23) 통계청(2005). 2004년 도시가계연보.
- 24) Ando, A. & Modigliani, F.(1963).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 25) Begelow, H F.(1950). What are usual Family pattern?. Journal of Home Economics 42(1), 27.
- 26) Davis, E. P. & Carr, R. A.(1992). Budgeting practices over the life cycl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3-26.
- 27) Duesenberry, J.S.(1949).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Cambridge Mass Harvard Uni. Press.
- 28) Duvall, E. M.(1967). Family Development. 3ed., New York, Philadelphia : J.B. Lippincott Comany.
- 29) Frederick, W. D., & Alane, K. L.(1980). The Family Life Cycle : An Alternative Approach.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 214-217.
- 30) Nickell, Rice., & Tucker(1976). Mamageent in Family Living, 5ed. John Wiley & Sons Inc.
- 31) Olson, D. H. 외 5인(1983). Families :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